

전남 교사가 말하는 교육 현실

전남 교사들 대상 책 출판 공모사업 '결실'

교원의 자긍심 향상 · 우수 교육 사례 공유 목적



전남 교사들이 현장의 교육 이야기를 10권의 책으로 폈다.

전남교육연구정보원은 1월 7일 오후 전남교육연구정보원 합동강의실에서 '교실혁신 전남교사, 한 권의 책이 되다' 저자 초청 자율연수를 갖고 책 출판 프로젝트 결과를 10권을 공개했다.

'교실혁신 전남교사, 한 권의 책이 되다'는 전남교육연구정보원이 추진하는 출판공모 사업으로 현장 교원의 우수 교육노하우를 발굴해 책으로 평화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교원의 자긍심 향상과 우수 교육 콘텐츠 확산을 도모하는 한편, 참여 교사들을 정식

영) △ 학교 적응 놀이(순천부영초 박희진 외 6인) △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신나는 책쓰기 수업(삼기초 김점선 외 1인) △ 수학하는 재미(여선중 이정아) △ 나는 어떤 특수 교사인가(나주이화학교 김동인) △ 우리반 아이들은 크리에이티(노화북초 박오종) △ 몰입교실: 아이들이 행복한 교실 이야기(불갑초 박영민 외 3인) 등으로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풍부하게 담고 있다.

저자 이준상(임자초등학교) 교사는 "책을 쓰고 싶다는 막연한 소망이 전남교육연구정보원의 '교실 혁신 전남교사, 한 권의 책이 되다'라는 사업을 만나 출판의 열매를 맺게 돼 무척 기쁘다."며 "앞으로 더 많은 교사들이 참여해 교육 현장의 생생한 내용들을 다양한 책들이 출간되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날 자율연수에 참석해 "이번 책출판 공모 사업을 계기로 우리 교사와 학생들이 책에서 꿈을 찾고 희망을 발견하기를 함께 응원한다."며, "앞으로 책 출판 공모사업을 전문가로서 교사상을 새롭게 발견하는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니 만큼 현장 선생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성은 기자

장흥교육 공감-소통콘서트 통해 교장선생님들 의견 경청

함께 성장하는 행복교육 만들기 프로젝트



장흥교육청은 지난 6일부터 7일 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보성다빈치 콘도에서 장흥 관내 초·중학교 교장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감-소통콘서트, 이야기 나눔의 장'을 실시했다.

'공감-소통콘서트'는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행복장흥교육을 만들어 갑시다"라는 주제로 학교에서 관리자의 역할, 존중과 소통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문화 형성 방안, 장흥의 지역적 특색에 따른 현안 문제 및 해결 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서로 자유롭게 대화하는 방식

으로 운영되었다.

콘서트에 참여한 한 교장선생님은 "장흥은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작은학교 비율이 60% 이상이다. 이런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초·중등간 수업나눔이나 학생들의 기초학력 지원의 연계성,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고민 등 서로 교류하며 해결해 나갈 숙제들이 많다.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이 마련하여 서로 의견 교류할 기회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며 소감을 이야기했다.

왕명석 교육장은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교육공동체 간 자연스러운 소통과 상호 존중하는 문화 정착이 장흥교육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콘서트에 참여한 참석자들은 상생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다하자고 힘찬 결의를 다졌다.

장흥=위지훈 기자

동·서부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모집

올해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 교육청 이관

광주 동·서부교육지원청이 8일부터 21일까지 2020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심의위원을 모집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가 2020년 3월 1일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로 변경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선도 및 징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 조정 등을 심의하며, 10~50명(학부모 위원은 1/3이상 포함)으로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동·서부교육지원청은 자천 및 추천 등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공정하고 신뢰 받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교육전문직원 또는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했던

사람,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 활교육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으로 재직했던 사람,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심의위원회는 교육기관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광주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교육전문가, 법조인, 경찰, 학교폭력 문제에 전문 지식이 있는 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도움을 주실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관 등의 추천과 자천을 받아 선정 과정을 거쳐 지역 및 학교급별, 성폭력·사이버폭력 등 전문분야별 인원을 안내하고, 2020학년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임명·위촉된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2월 중에 성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 관련 법령,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 심리 이해 등을 내용으로 공정성, 객관성, 도덕성, 전문성, 신뢰성을 높이는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오승현 부교육감은 "2020학년도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의 지원청 이관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신뢰 받는 심의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광주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교육전문가, 법조인, 경찰, 학교폭력 문제에 전문 지식이 있는 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도움을 주실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나는 겨울방학, 꿈 찾Go, 행복 찾Go!' 캠프 운영



'꿈찾고, 행복찾고'에 참여한 학생들이 드럼을 배우고 있는 모습이다.

전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초등 학생 248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0 겨울방학 꿈 찾Go 행복 찾Go 캠프를 실시하였다.

'2020 겨울방학 꿈 찾Go 행복 찾Go 캠프'는 방학을 맞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체육·과학 분야의 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꿈과 재능을 계발하는 한편, 다 15차시동안 진행된다.

양한 분야의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번 겨울방학 캠프는 5일간 1

기(오전반)와 2기(오후반)로 나누어 운영하는데, 9개 프로그램(키즈 발레, 나도 미술사, 토털공예, 뉴스 포츠, 어린이 피티쉬, 신나는 드럼, 스마트폰 동영상 만들기, 창의과학, 도전 웹툰 작가)별로 15명씩

여수=김도현 기자

